

한일 공동제작포럼 2013 강연회

“한일 공동제작의 현황과 전망”

영화진흥위원회가 12월 10일 한일공동제작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일본 영화산업은 그간의 부진을 딛고 최근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화진흥위원회는 전통적으로
한국영화의 중요한 공동제작 파트너였던 일본의 주요 영화인들을 초청하여 현지의 제작여건과 원작 활용
노하우를 알아보고,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인 한일 공동제작영화 <무명인(감독 김성수)>
제작사례를 통해 양국간 공동제작의 가능성을 조명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이번 강연회는 한일 공동제작 프로젝트 15편에 대한 영진위의 멘토링 프로그램인
'한일 공동제작포럼 2013'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동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의 경험과 전문성을
강연의 형태로 영화인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일 간의 국제공동제작에 관심있는
영화인과 영화학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개요

주최: 영화진흥위원회

장소: 노보텔 엠베서더 부산(해운대구 중동) 4층 아이리스

일시: 2013년 12월 10일(화) 오후 3시~6시

대상: 영화인 및 영화관련 전공 학생

행사내용

시간	내용	발제자
3:00~4:30	2013 일본 원작 활용 노하우	야마가미 테츠지로, 오카다 와타루
4:30~4:50	한일공동제작 영화 '무명인' 트레일러 상영	-
5:00~6:00	한일공동제작 영화 '무명인' 케이스 스터디	김성수 감독

- **야마가미 테츠지로:** 시그로 대표, <술이 깨면 집에 가자>등 프로듀서, 한국영화 <워낭소리> <시> 등 배급
- **오카다 와타루:** KADOKAWA 영상영업국 해외기획부 해외기획과 프로듀서, <최후의 추신구리> 등 프로듀서
- **김성수:** <야수>, <무명인> 감독

- 행사문의는 aergdoo89@kofic.or.kr 또는 051)720-4796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인원이 행사장 규모(100여 명)를 초과할 경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